



눈물은 분명 슬플 때 납니다. 아플 때 납니다. 고통스러울 때 흘러 내립니다. 그런데 울고 나면 무언가 풀리는 기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다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을 통해 배출돼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눈물, 반사성 눈물, 그리고 감정적 눈물이 그것들입니다. 기초눈물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분비되어 안구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기능을 하고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세척하고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데 울지 않아도 하루에 약 0.6cc의 눈물을 분비합니다. 이 눈물이 나지 않으면 안구에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사성 눈물은 양파를 썰 때나 눈을 찔렸을 때 나오는 눈물을 말합니다. 먼지나 연기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를 썰 때 눈에 해로운 휘발성 화학물질이 나와 기체 상태로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씻어내려고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성 눈물은 감정의 지령센터인 뇌에서 신호를 보낼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앞의 두 눈물은 예방이나 치료의 역할을 하는데 비해 세 번째 눈물은 수수께끼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눈물을 흘리라는 명령을 전달하면 눈물샘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교감신경에 의한 분노의 눈물, 억울한 눈물은 수분이 적으므로 맛이 진하고 짭짤하지만, 부교감신경에 의한 슬픈 눈물이나 기쁜 눈물은 약간 싱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눅 6:21)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훗날 웃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울게 하실 때 울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너무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울어야 할 이유도 못 찾고, 흘릴 눈물도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여! 성은의 성도들에게 울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소서!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회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❷ 매주 수요일에 거리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 구원에 한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❸ 6월 중보기도카드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❹ (새가족등록) 김정순님이 등록하셨습니다.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이번 주 식당봉사 - 4셀 ▶ 다음 주 - 3셀

#### ◆ 6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6/24(토)	강북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주최 교사세미나 (가성교회)

####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